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에 변영익 목사

제42차 총회 열려, 수석부회장에 진유철 목사 당선

남가주교협교회협의회 제42차 정기총회가 벨앨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에서 7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인 변영익 목사가 자동으로 회장에 추대, 인준됐고 수석부회장에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단독출마해 당선됐다.

변영익 회장은 "부족한 종을 인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내 목회의 마지막은 교회들을 봉사하는 것으로 정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전회장이던 민중기 목사는 "부족한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도와 주셨다. 여러 지도자와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임원진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취임감사 예배 전까지 구성한다. 취임감사 예배 일정은 미정이다.

교협의 회계 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수입은 \$144,485.75, 총지출은 \$144,433.39로 잔액은 \$52,361이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회에 민중기 목사, 기도에 이정현 목사, 성경봉독에 정우성 목사, 설교에 김사



새로 인준된 회장과 수석부회장, 전회기 임원진들

무열 목사, 광고에 박세현 목사, 축도에 김도석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성령의 열매' (고전 4:1-2)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사무열 목사는 "말

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라며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말과 재능으로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봉사하

기에 힘써야 한다.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INTERVIEW

20대 30대 장로들과 함께한

전도목회 · 다민족목회 · 소통의 목회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민족, 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아래 하나될 수 있을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서로의 같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대로라면 한 교회를 사용하며 민족별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서로를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파사데나장로교회에는 백인, 한인, 라티노가 공존한다. 이 교회는 지난 140년 역사동안 파사데나를 지켜 온 백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PCUSA 교단의 총회장도 4명이나 배출했고 성도 수가 무려 5천명에 육박하던 대령교회였다. 그러나 전 반적인 미국교회의 감소 현상에 따라 이 교회의 성도도 점차 줄기 시작했다. 교회 측은 "다민족 목회"라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아래 타민족들을 교회로 초대했고 10년 전 성령경 목사가 파사데나장로교회의 한인 목회를 위해 이 교회의 자봉아래서 개척을 시작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성령경 목사

1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도 수가 부인 당시 350명이던 백인 회중은 이제 150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인들은 500명으로 늘었다. 한인 유입 인구가 적은 파사데나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성도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새롭게 세례받은 성도란 점이다. 참, 한가지 더 있다. 불신자 때부터 세례받기까지 성 목사에 게 훈련받은 20대, 30대 한인 장로들이 담회원이 되어 타민족들과 함께 전체 파사데나장로교회를 이끌고 있던 것이다.

수평이동 없이 이뤄진 청년들의

부흥 스토리를 성령경 목사가 털어놓는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정작 그는 '부흥'이란 단어보다, '청년 목회'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백인교회의 감소 현상에서 미래 한인교회의 감소 현상을 미리 본다", "현금이 감소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된다고 안심하면 그 말은 곧 청년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미국교회보다 더 커졌다고 자랑하기보다 그들이 한국에 뿌린 신앙의 씨앗이 지금 거두어져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본다"는 말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 2면에 계속

OC교협 정기총회 개최, 엄영민 목사 회장 임명

"주어진 시간에 섬김과 전통 잇는데 주력"

오렌지카운티교협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제21차 정기총회가 3일 오전 10시 30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새 회장으로 엄영민 목사가 임명됐다.

총 32명의 원로목회자 및 OC교협 회원이 참석해 진행된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민경열 목사, 부회장에 박상목, 손병렬, 오세호, 송규식, 윤덕근, 이호우, 고현중, 남성수 목사, 총무에 백낙균 목사, 이사장에 윤성원 목사, 총무에 박용덕 목사, 서기에 이춘덕 목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전도연합회 회장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회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수입은 \$17,001.65이었고 총지출

은 \$15,848.31로 잔액은 \$1,153.34이었다.

엄영민 회장은 "(회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섬기고, OC교협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골 3:3-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신원규 목사(삼성장로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충실하자"고 말했다.

OC교협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 제 1차 임원회 모임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29일 사람의 쌀 나누기 행사,



오렌지카운티교협회의가 총회를 열고 엄영민 목사를 신임회장에 임명했다.

3월 14일-17일 남가주영적대각성연합회 공동주최, 5월 19일 사모 블레싱 나이트, 8월 26일 SB48 저지를 위한 남가주교협 공동 기자회견 등 지역교회와 한인단체를 섬기는 데 앞장서 왔다.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www.theamac.org 등록비: \$50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 "이슬람을 이긴다"
 부제: 무슬림에게 복음을
 강사: 공다니엘 선교사 Ph.D
 일시: 12. 5(월) - 7(수) 저녁 7시
 장소: 베델한인교회 찬양채플 5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강사 공다니엘박사 중동 J 국에서 신학교와 이슬람 대학교의 교수 겸임 저서로는 이슬람 율법, 꾸란의 이해, 수피즘과 수쿠르, 꾸란의 의미를 찾아, 이슬람문명의 이해, 무슬림과 의사소통을 위한 새 패러다임, 아랍어 이해 등 16권이 있다.
 문의: 이요셉목사 714-767-8234, 박영국목사 562-972-7702, amac_joseph@gmail.com
 주최: 베델한인교회 / 공동주최: 순서: Global Partners, GMIT, Interserve, KPM USA, Silk Wave Mission, SON Ministry, The Paul Mission, TIMA, V2R, WMC 국제기도교회
 후원: KIMNET / 주관: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 문의: 이요셉목사 714-767-8234, 박영국목사 562-972-7702

개척 10년동안 5백명으로 성장 “그동안 세례준 사람만 2백명 넘어”

청년 떠난 미국교회, 이젠 한인교회 이야기



-파사데나장로교회의 다민족 목회는 이미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만 목사님께서 직접 그 특징을 소개해 주십시오.

장로교회는 민주적 교회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위해 회중들의 대표가 당회를 구성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파사데나장로교회에는 백인회중, 한인회중, 라티노회중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교회 건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속한 하나의 회중입니다. 예배는 언어별, 문화별로 다르지만 한 당회 아래 그 당회와 자신이 속한 회중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해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갑니다. 이들이 파사데나장로교회의 다문화, 다인종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인종, 어느 민족이 위에 있고 밑에 있다는 개념이 없이 모든 회중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다민족 목회를 시도했지만 한국문화에 기반한 수직적 관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런 모델을 시도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며 “한인교회의 게토화”를 고민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가 미국 사회와는 동떨어져 문화적 게토화되어 버리면서 한인교회가 한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가려막는 장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도와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적응하는 것은 오히려 막는 이중적인 문화 장벽이 한인교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인 교회들에도 다민족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저는 한인교회에서 EM 사역도 해 봤고 미국교회에서 아시아인 미니스트리 디렉터도 해 보면서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인이건, 한인이건, 다 좋은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집니다. 왜일까요?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내면화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 아래 다민족 목회에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리를 존중합니다.

민족 간의 차이는 물론 큼니다. 그런데 민족 간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백인 자녀들과 한인 2세 자녀들의 문화 차이

한인교회 게토화 고민하다 다민족 목회에 비전 회중 간 신뢰와 인내가 관건

-어떻게 파사데나장로교회의 한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140년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미국교회들이 백인들은 교외로 이사가고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크고 강했던 옛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40,50년대, 미국사회 최고의 지성들과 일꾼들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5천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성도는 35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공동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이 교회는 다민족 목회를 돌파구로 찾았습니다.

마침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PCUSA 교단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 뜻을 알고 파사데나장로교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민족 목회를 시작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는 개척을 원했으니 이것이 공통분모가 된 것 같습니다.

-파사데나장로교회라면 다민족 목회와 청년 목회로 특징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민족 목회는 공통분모를 늘려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된다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시작”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적인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별로 각자 예배하고 자율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라티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도 우

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살아 갑니다. 그런데 50대 한인 어른과 10대 한인 청소년의 문화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문화 차이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보면 다민족 목회가 단순히 민족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 목회를 다민족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새로운 접근인데요.

저는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의 이탈을 목격했습니다. 한인교회의 문화 가운데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인 것이 많습니다. 당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회장 중심의 문화나 한국교회의 평신도-집사-장로 식의 줄서기 문화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볼 때는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문화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받는 충격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 같은 한국인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같고 머리카락 색깔도 같은데 어떻게 나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나? 이것에 대한 충격입니다. 소통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면 백인, 라티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자체가 빠른 사회 변화를 겪으며 다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지 20년된 분이 다르고, 갓 이민온 분이 다르고, 유학생이 다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상담: 그레이스 (Grace)

-그런데 파사데나장로교회는 젊은 이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하죠?

공존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장로들이 구성하는 당회가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연륜있는 분들이 가진 장점이 많지만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리더십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스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이 갈등할 때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이 일곱 집사 모두 그리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 당시부터 20-30대가 주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50-60대 장로를 빌려올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젊은이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대에서 40대가 90%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50-60대도 늘어나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40대 이하가 6, 40대 이상이 4 정도 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수집사를 찾아 가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수집사가 장로에게 말합니다. 그럼 장로가 당회에서 이것을 이야기 합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까요?

우리 교회는 20대 장로가 당회에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30대, 40대 장로들이 더 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세대, 모든 세대를 이끌어갈 때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장로교단의 원리입니다.

-청년들이 대형교회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개혁교회로 물러나니 놀랍군요.

제가 개혁을 원했던 것은 새로운 문화의 교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시스템이 잡힌 교회에 청빙을 받았다면 이런 일들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성교회를 바꾸려다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럴 바에야 저는 개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꿈꿀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미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리 워렌이나 빌 하이벨스는 모두 새로운 것을 원했고 그래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전도하는 데에 치중했습니다. 저는 청년 목회보다 전도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청년들이 전도된 것입니다. 새롭게 전도

된 청년들은 솔직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처럼 직격탄도 날아 옵니다. 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목회하려면 예의바른 목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소통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닌 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 목회입니다.

은 "불신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파사데나는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라 합니다. 일단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개혁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모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기존 교회의 스타일을 답습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런 스타일을 가진 교회들이 이미 있었기에 경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길 찾는 것 불신자 위한 교회 지향한 지난 10년 소통의 목회가 오늘날 목회의 방법

-꿈꿀 자유는 있지만 그런 꿈을 꾸는 목회자는 드물 듯 합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저는 "목회란 나에게 주신 길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는 제게 있어서 저의 구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과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제 목회의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나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가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을 한 것은 제가 더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절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저는 성도가 20명일 때도 행복했고 50명일 때도 행복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월급을 제대로 받아간 적이 없고 받더라도 대부분 사역비로 써야 할 지경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성교회와 월가 고민이 늘었습니다.

-전도 목회란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가 많은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전체 성도의 80-90%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 드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불신자 옆에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한명 불신자를 전도하니 그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만 2백명이 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한인들이 급속히 성장한 것에 대해서 파사데나장로교회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미국교회에서 보는 한인교회의 사선이 색 고무 것만은 아닐텐데요.

백인에 비해 성도 수는 우리가 3배이고, 헌금도 2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주인공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느끼는 것은 "Fear of Dying"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들은 청년들이 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라. 한국은 너희들이 선교한 나라다. 너희의 선조들이 뿌린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파사데나에서 꽃피고 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너희의 열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교단은 소속 한인교회의 분열이나 갈등에 대해서 경멸하고 들으면서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런 충격들로 인해 미국교단에서 보는 한인교회에 대한 인식이 색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기본을 익히고 그 위에 우리의 창의성과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목회적 가치로 보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젊은이들이라 보니 헌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젊



다 보니 여기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타주로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무형의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5천명 되던 미국교회도 지금 저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헌금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헌금은 경제적 기반이 있는 나이든 분들이 내시기 때문이

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20대, 30대가 떠나 버린 교회들, 헌금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며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 추천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드립니다.
-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 천사 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콜선)

부개골반

목 (경부)

나은 양은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국산목의 긴장을 풀어 C 카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의 가벼운 목디스크도 예방합니다.

통상부

교은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통풍기인 초음파를 놓고.

30일 100% Money Back Guarantee

Sae Arc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뉴월드임마누엘교회 이전 감사예배

김승원 담임목사

Mary Kim 담임목사

주님의 은혜로 뉴월드임마누엘교회가 한인타운 새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11.13 (주일) 2:00 PM

뉴월드임마누엘교회 | 주소: 1234 E. 7th St. LA, CA 90017 | 연락처: (909)993-4842, (909)993-2157

제30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 성대히 개최

900여명 청중 참석, 8개 교회 찬양대와 2개 합창단 참여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제30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가 개최됐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황성삼 회장)가 40주년을 맞아 '제30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를 6일 남가주사랑교회에서 개최했다. 약 900여명에 달하는 출연진과 청

중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합창제에는 8개 교회의 찬양대와 2개의 합창단이 참여해 기존의 단순한 음악의 형식을 탈피해 음악회와 예배 형식이 조화롭게 접목됐다는 평

을 받았다. 1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한인교회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주는 강한 성>, 브리지교회가 <축복하노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정

신동문코러스가 <왕 중의 왕>, <이 기쁜 날>, 큰빛교회가 <깨어라 성도여>, <네게 주신 한 달란트>, ANC은누리교회가 <주님과 함께>, <마른 뼈들>을 열창했다.

또 유니온교회에서 <Kyrie Eleison>, <죄짐 많은 우리 구주>, 주님세운교회에서 <나팔불어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Los Angeles Chamber Choir에서 <영광>, <준귀하신 주님>, 늘푸른선교교회에서 <나의 등불 밝히어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남가주사랑교회에서 <모세>,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를 합창했다.

남가주한인음악협회 황성삼 회장은 "저희들이 30년을 성가 대합창제를 이끌었는데, 기존의 합창제를 개설했던 방식과 달리 이번엔 음악에 배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분들이 대체로 다른 합창제와 달리 은혜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앞으로 매년 여는 합창제도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분위기와 반응이 좋아 성가대 규모가 커진 작년 상관 없이 준비한 찬양을 발표하면서 성가대 분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장로교 남가주하와이 대회장 원영호 목사 취임해



원영호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원영호 목사 "기도하면서 겸손히 임할 것"

미국장로교(PCUSA) 남가주 하와이 대회장(Moderator, 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위임식이 5일 라카나다 장로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 Rev. Dr. Leon Fanniel가 '전진하라'(빌립보서 3:12-16)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직전 대회장 Rev. Arthur Ross로부터 취임 선서 후에 대회장 휘장을 전달받은 원영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도전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의 본연 자세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임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가주하와이 대회에는 산하에 한미노회를 비롯해 8개의 노회가 있으며, 지역은 남가주와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다.

원 목사는 서울시립대, 서울대 학교 공과대학원, 워싱턴주립대, UCLA 토목공학 박사과정, 풀러신학대 M Div.에서 공부했으며, 현재는 성립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LA County Sheriff Chaplain,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KCC (한인교회연합) LA간사, GEDA선교회 부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은혜 공동체 향해" 미주영광교회 창립

윤충열 목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

치유와 은혜의 공동체를 기치로 건 미주영광교회가 2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윤충열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김준식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의 설교, 최윤영 목사(세계선교교회담임)의 축사, 피터 강 목사(ANC 은누리가정사역목사)의 축도로 드러졌다.

김준식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절-47절을 본문으로 '교회 부흥의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

사는 교회 부흥을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둘째로 학교처럼 교육하는 교회, 셋째로 가정처럼 풍성히 교제하는 교회, 넷째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다섯째로 정성어린 봉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 최종철 집사가 교회창립경과 보고에서 "미주영광교회는 2011년 9월 4일 최종철 집사 집에서 5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후 9월 18일에 7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윤충열 목사 청빙

을 결의 후, 지금의 TRINITY BAPTIST CHURCH(8219 Florence Ave. Downey, CA90240)로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충열 목사는 "오늘 이렇게 미주영광교회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교인들과 함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안규 기자

성경 암송 통해 하나님 성품 닮기

남가주광영교회(정우성 목사)에서 지난 5일 오전에 '성경 암송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닮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모인 아이들은 학부 모들 앞에서 암송한 성경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하나 사모는 "아이들이 성경구를 많이 외면 성경을 인파도 성구가 줄 줄 나오고, 기도 중에 말씀이 줄 줄 나오니 힘이 있다"며 "암송만 시켰는데 아이들이 영재만, 수재만에 진학하는 등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 정 사모는 "아이들이 영이 밝기 때문에 부모가 성구를 외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서 한다"며 "또 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영광교회가 지난 11월 6일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좌측 네번째가 담임 윤충열 목사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은?

'복된 인생이 되라'의 주제로 김문훈 목사를 초청, LA사람교회(김기섭 목사)에서 제7차 영적쇄신집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5일 저녁 7시에 '소박 쏙박 대박'(마25:14-21)이란 제목으로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만의 달란트, 향기, 그리고 원천적으로 부탁하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찾아가서 치열한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비교, 비판하지 말라"며 "안되는

사람은 자기 몫이 많다. 바로 장사 해서 수익을 남긴 선한 청지기 같이 성공한 사람은 타이밍이 빠르다"고 말했다.

이날 김문훈 목사는 CTS, CBS, C3TV에 유명세를 떨치는 특강 강사답게 시종 유머러스하게 집회를 이끌며 웃음과 감동을 그리고 도전을 줬다. 김문훈 목사는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며, 고신대학교를 졸업해 크리스천 가정치유 상담 소장을 역임했다.

토마스 맹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2011년~2012년 겨울계절학기 신입생 모집〉

수료 프로그램 과정 Certificate Program Course	코드 course code	과 목 명 Course Title	담당교수 Professor/Instructor	기 강 Course Period	시 강 Class Hour
크리스천 가정 상담 Christian Family Counseling	CFC101	성서적 상담의 기초 Foundations of Biblical Counseling	피 터 강 Ph.D.	2011. 12. 19(월) ~ 12. 23(금)	오전 9:00 ~ 오후 5:00
	CFC102	위기관리 상담 Crisis Management Counseling	권 오 군 Ph.D.	2012. 1. 23(월) ~ 1. 27(금)	
이민교의 가정 사역 Immigrant Church Family Ministry	FM101	가정 사역의 성서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이 상 명 Ph.D.	2011. 12. 19(월) ~ 12. 23(금)	
	FM102	목회상담과 돌봄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크리스티나 강 Ph.D.	2012. 1. 23(월) ~ 1. 27(금)	

-학점인정: 수료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가운데 본교 학위 프로그램(B.Th., M.Div.)으로 입학할 경우 최대 9학점(3과목에 해당)을 인정해 줌.

과 정 Degree Program	코드 Course Code	과 목 명 Course Title	담당교수 Professor/Instructor	주/야강 Day/Night	기 강 Course Period
Th.B.	TH313 필수	기독교 영성 Christian Spirituality	최 철 Ph.D. (C.)	야간	2012. 1. 9(월) ~ 1. 20(금)
Th.B.	OT202 필수	선지서 Prophets	김성익 Ph.D. (C.)	주간	2012. 1. 9(월) ~ 1. 13(금)
Th.B.	TH205 필수	해석학 Hermeneutics	이 상 명 Ph.D.	주간	2012. 1. 16(월) ~ 1. 20(금)
M.Div.	ST561 필수	미 원주민 선교 American Indian Mission	안 병 호 Th.M.	주간	2012. 1. 9(월) ~ 1. 13(금)
M.Div.	MI572 선택	목회상담의 실제 Practicum of Pastoral Counseling	강 피 터 Ph.D.	주간	2012. 1. 16(월) ~ 1. 20(금)
M.Div.	PT606 선택	설교연습 Preaching Practicum	계 지 영 Ph.D.	야간	2012. 1. 16(월) ~ 1. 27(금)
M.Div.	PT602 필수	종교개혁 신학사상 Theological Thoughts of Reformation	한 성 찬 D. Theol.	주간	2012. 1. 23(월) ~ 1. 27(금)

* 위 시간표는 감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시간: (1) 주간반(1주강): 오전 9:00~12:00, (점심: 12:00~1:00), 오후 1:00~5:00 / (2) 야간반(2주강): 오후 7:30~11:00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 www.pts.edu

2011 열린말씀 컨퍼런스 “참 안식은 동행에 있다”

〈안식과 회복으로의 초대〉 주제로 이틀간 열려



이국진 목사가 참 안식에 관해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열린말씀 컨퍼런스가 ‘안식과 회복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4일~5일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 남가주에서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모임에서 강사

로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박영배 목사(풀러튼 뉴라이프선교회), 이국진 목사(필라델피아 사랑의교회),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회), 최정권 목사(셀튼햄장로교회), 한성운 목사(LA남포교회)가 참여했다. 이국진 목사는 5일 오전에 ‘참 안식의 실제: 그 의미’(계21:1-7)란 제

목으로 전체 강의를 이끌었다. 이국진 목사는 안식의 참된 개념은 노동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품 속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고 권고를 들을 때,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죽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안식에 거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어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쉬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며 “침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장막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교수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 사도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는 헐벗고 굶주렸지만 감옥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품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열매의 따뜻한 품 속에서 평안한 아기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 의미”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토마스 맥 기자



PHOTO NEWS

나성금란교회

커뮤니티와 하나된 예배와 교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윤선식 목사)가 교회 주변의 히스패닉, 흑인 커뮤니티를 교회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5일 오후에 가졌다. 이날 교회를 개방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점퍼와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풍선 아트와 솜사탕을 만들어 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이날 성인 200명, 어린이 150여명 등 약 350여명의 히스패닉, 흑인 이웃이 방문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교회가 아닌 이웃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맥 기자

적극적으로 취업 돕는 ORT 칼리지

LA ORT 칼리지는 짧은 기간 공부하며 미국 전문직의 자격증을 따고 높은 고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영리 재단 취업전문 사립 대학이다.

13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외에서 뉴욕에 두 대학과 시카고, 엘에이에 있는 벨리 분교와 월셔가에 본교가 있다.

LA ORT 학교에서는 취업을 소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며 이력서를 쓰는 요령, 그리고 면접하는 태도와 매너 등을 졸업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90% 이상의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정보와 추천서를 제공한다.

현재 LA ORT 학교 졸업생 중 고려병원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 약국, 양로원, 변호사 사무실 비서, 다운타운에 있는 일반 회사, 웹디자인, 신문사, 공인 회계사 등 많은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취업길에 있는 많은 LA ORT 학교 졸업생들은 과거 대부분 직장을 잃었던 이들, 혹은 현재의 직장보다 더 보수가 좋은 직장을 원했던 이들도이다.

그들은 모두 LA ORT 학교를 통해서 이민자의 꿈이 이루어진 셈이라고 말한다.

이 길은 누군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연령에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

직장을 바꾸고자 하는 분이나 더 좋은 보수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LA ORT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비자 서류도 간단하며 입학 허가서(1-20)도 저렴한 비용인 \$1000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유학생 업무도 최선을 다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영어(ESL) 클래스는 최근에 회화반도 생겼다.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 분,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전문으로 가르치는 우리 학교로 오길 바란다. 저소득층이고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모두가 무료다. 컴퓨터 그래픽도 어드밴스 클래스가 최근에 또 생겼다”고 강조했다.

LA ORT 학교는 여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비서직, 매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생활영어(ESL), 매디칼 어시스턴트, 약사보조직(미카인센스 가능), 컴퓨터 그래픽 등 관련 훈련 과정을 갖고 있다.

아침만, 저녁만 등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짧은 시간에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시간표가 잘 짜여져 있다. 당연히 다양한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다.

문의: 그레이스 이
주소: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5층)
(213)703-6863
(323)966-5444
www.laort.edu

박기성 기자

PGM 선교신학포럼 성황리 종료



PGM 선교교회 참석자들이 포럼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모든 일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것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년간 PGM은 그 발전과 함께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1차 PGM 선교신학 포럼은 PGM의 핵심가치에 대하여 선교신학자들의 신학적 고찰과 가감없는 외부적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잘 된 부분은 더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PGM

선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 선교회) 선교회의 창립자이며 국제대표인 호성기 목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필라안디옥교회에서 열린 제1회 PGM 신학 포럼의 의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영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온 80여명의 신학자, 선교사, 선교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

다. 모두 4명의 학자들이 PGM의 4가지 핵심가치, 곧 “디아스포라, Here & Now, 전문인, 교회 중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다른 4명의 논찬자들이 연구에 대한 응찬 원고를 발표했다.

PGM의 첫번째 핵심가치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위클리프선교회 디아스포라 선교 담당 김성훈 선교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디아스포라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 복음화는 각별히 의도된 ‘하나님의 숨겨진 모략(divine conspiracy)’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옥스퍼드 대학의 마윈 박사(박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나는 선교의 명령이 PGM의 ‘지금 여기서 Here & Now’ 라는 두번째 핵심 가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 교회로 세상 안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존재임을 재확인 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사랑의교회 세계선교 부 사무총장 유승관 박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는 일종의 핑신 운동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전신자선교사주의를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로 아브라함의 선교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주 학원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정민용 박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선교의 대위 임령은 지역교회에 주어졌던 명령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와 가르침과 제자 삼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교회중심’의 선교라는 PGM의 마지막 핵심 가치를 지지했다.

PGM 선교회는 연구원 자료를 한글과 영어로 재편집하여 출판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두번째 신학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토마스 맥 기자

성경 66권 전체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각 책과 각 장마다 자세히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적 상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담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적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받으며, 실천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부하게 됩니다.

바이블 동서남북

성경 내용에 틀을 만들어 성경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원어 공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게 됩니다

PAUL BIBLE COLLEGE



SOLA 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을 가나 각종 ‘성경연구 프로그램’이나 설교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과 혼합하여 가르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영적 목마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바울성경대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결과 골수를 켈러 조끼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바르고, 깊이 있게 교육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 상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삶의 문제를 상담하는 성경적 상담자들을 양성하여 이 시대를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전화: 562-394-3342
이메일: paulbiblecollege@gmail.com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제2회〉 그리스도의 족보

유동근
한국은누리신학교 목사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1-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6-17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世系)’라고 함은 족보책(a record of genealogy)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이라”고 번역되어야 맞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왕족으로 출생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 수차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 왕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다윗의 자손이심을 기록한 것이다.

원문에는 ‘다윗의 아들(Son of David)’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특기할 만한 조상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다. 구약의 족보는 아담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 올 때 그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선택된 백성, 믿음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 아니라 특히 다윗의 아들이시다. 이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아들은 그 위(位)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물론 이스마엘과 후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에서 지혜의 말을 하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모든 유업을 물려받고 또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로 다시 받은바 되고 같은 족속의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과 같은 분이시다. 솔로몬과 이삭의 이 둘의 특이한 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매우 특정한 말이다.

인류 역사의 의미이신 그리스도

또 한 가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history(역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His story)라는 뜻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다윗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결국 누구를 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많은 족보의 역사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 대 한 대가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과연 몇 대에 가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십이(42)대의 낳는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구약의 열왕기의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역사이다.

42대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계가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

나하나 따로 관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서 한 자손이 나올 것을 보고 계셨다. 그의 자손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단수의 단어이며,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이다(갈 3:16).

우리는 룻과 경건한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안다. 그 역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위한 비밀한 역사이다(룻 4:17-22).

여호수아 시대에 열두 정탐의 이야기와 여리고의 라합의 역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단순한 가나안 정복기가 아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출생을 내다보며 한 발씩 걸어가고 있는 역사이다.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안다. 그러한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련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는 공허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모든 역사는 공(空)으로 끝난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다.

신약의 역사는 낳는 역사이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5장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는 아담의 족보 책이라는 말이다. 이 문장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이라”는 문장과 구조가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족보는 아담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것이다. 두 족보 사이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4절부터 그 족보가 나온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삼십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일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십이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구약의 족보에는 낳은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죽은 것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죽었다는 말은 없

고 낳았다는 말만 있다. 왜 죽었다는 말이 없을까? 믿음의 자손들은 낳는 것만 있지 죽는 것이 없다. 이것이 신약의 축복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낳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자식을 낳아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우신다. 그것은 이와 같이 자녀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신약의 역사는 낳는 역사이다. 낳는 것이 있을 뿐 죽는 것은 없다. 신약의 자녀들은 영생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로 출생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 신약의 역사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 낳고 ... 낳고’가 있다. ‘죽고’는 없다. 신약의 첫 장에 ‘... 죽고 ... 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그러나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죽음이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약의 믿는 이인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껏해야 좀 오래 사는 것뿐이다. 언젠가 주님의 오시는 날에 깨어나게 된다. 좀 길게 사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요 3:16, 요일 5:13).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삶이 있다.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와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신학교회 담임목사, 미 퍼시픽 신학교 교수, 국제선교 신학, 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1월 21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usa.com / i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턴)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 서는 현장!”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등록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00:00.05
00:00.04
00:00.03
00:00.02
00:00.01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2차 : 12월 11일까지 \$200

3차 : 12월 20일까지 \$240

www.gkymwest.org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Author of
Crazy Love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윤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차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가갈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 | | | |
|--------|--|-----------------|
| 명예대회장 | 박희민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 한기형감독(나성동산교회) |
| 대표대회장 |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
| 대회장/강사 | 고승희목사(아름다운교회) | 이성현목사(드림교회) |
| | 김희수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 임현수목사(토론토큰빛교회) |
| | 민중기목사(중현선교교회) | 최홍주목사(에브리데이교회) |
| | 박성규목사(주님세운교회) |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
| | 박성근목사(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 |
| 준비위원장 | 김동환목사(KCCUSA) | |
| 실행위원장 | 김지성목사(글로벌선교교회) | |
| 조직위원장 | 이성우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 송병주목사(선한청지기교회) |
| 트랙실무책임 | Sam Koh 목사(Hillside Ministry of LACPC) | 이광길교수(풀러선교대학원) |
| |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 조현영목사(큰빛감리교회) |
| |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 최경목목사(또감사선교교회) |
| | 박문환목사(아가페선교교회) | |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원들선교회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 중앙일보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위크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일보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新) 단동복지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2000년 4월 단동복지병원이 개원한 이래, 10년이 흘렀다. 압록강 강변에 있던 병원은 이제 단동 시내 한복판으로 이전해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한다. 그동안 의술과 함께 사랑을 전해 온 샘(SAM Care)의 박세록 장로는 새롭게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은혜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선교 편지 형식으로 본지에 전해 왔다. 그의 편지 속에는 새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있었던 어려움들 중 일부와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

샘 사역 문의 및 후원) SAM Care 미주본부 213-381-1347(최상영 본부장)
국제본부 714-515-5433(이양화 본부장)

지난 2011년 10월 28일 단동 시내 한가운데서 단동시 공산당 간부들, 공회 책임자들, 그리고 중국 강북병원 원장을 비롯한 의료팀, 심지어 우리 관할 공안국 소장까지 참여하였고, 미국, 한국, 호주 등지에서 참여한 우리의 본부장들, 후원이사들 30여 분, 그리고 우리 현장 사역자들 이렇게 총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예배실에서 개원식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이를 위하여 26일(수)와 27일(목)은 뉴저지베다니교회 장동찬 목사님을 모시고 13차 영성수련회를 은혜가운데 잘 마치고 영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하였습니다.

새로 건설된 단동병원, 지난

(舊)단동병원이 번두리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시내 한 가운데로 중국 국가병원 캠퍼스 안에 새롭게 3층 건물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준비된 전문가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공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를 3개월 반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가장 실력 있고 충실한 건축회사와 계약이 되었고, 여기에 미국에서 건축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와서 직접 모든 과정을 맡아 주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건설 마무리 전문가를 보내 주셔서 중국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깔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단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강인한 정을 받았지만, 성과 북경 정부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임을 아는 고급 관리들이 혹시라도 후에 책임질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최종 허가를 꺼려서 시간이 예상보다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병원 이전과 개원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과정을 단동 관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은 한 달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공사는 계획된 시한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힘, 그 어느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들을 새 병원과 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

입니다. 고난과 부정적인 핍박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 놓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쁨” 들만이 남아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하였고, 회개와 순간들이 계속되었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모함과 중상 모략도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기도 에 강하게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장되시니

(新)단동병원은 이미 단동 시내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중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담한 병원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로 환자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는 무료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때에 미리 예비된 외과 의사 이흥우 전도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협조를 받아 중국에서는 최초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고 북한에서 온 환자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영원구원의 역할을 열심히 담당할 것입니다.

삼성재단의 도움을 받고 강변에 민족학교 “민들레 학교”를 개원하였습니다. 우선 1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한글과 한국 역사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강 건너에 있는 북한의 학교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사랑의왕진버스가 경기도 지역보다도 넓은 강변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봉사(물민동산사역)를 계속 할 것입니다. 숨어서 비밀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고 다닙니다.

단동병원은 “사랑의 집”을 운영하며 모든 필요한 생필품들을



개원식 기도하는 박세록 장로



새롭게 이전한 단동복지병원의 내부 모습

나누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 (新) 단동병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두 개로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와 주십시오.

이 이런 기적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많은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AMcare 대표 박세록 장로



단동복지병원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STM)
- 신학박사(D.Min.)
-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루,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미주지역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
연방법원 및 세법과 관련된 변호사
미국인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지역 한인회(KOCA) 후원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미국-영국인 총 연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sins, Brothman, Kanu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재판 전문 컨설팅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다블유 오피스 77호
02-541-0556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국제기독교육아교육대학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1월 21일
 (2주마다 입학가능)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 www.icecusa.com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경건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신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shure mx418/c / 18" 감대상 마이크 \$199.00	earth work Cardoid 감대상 마이크 FM500 / 19in \$499.00 FM720 / 27in \$499.00	shure Cardoid 무선 편 마이크 WL184 : 115 degree \$106.00 WL185 : 130 degree \$107.00	shure ppx24/sm58/ 무선 마이크 핸드 타임 세트 \$399.00	sen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	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	countryman E6I Directional earset mic / 무선 이어셋 마이크 \$449.00
Microboard CD/DVD Duplicator QD-DVD-125 \$519.00	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ith 10ea	bose ds16f / 전장 스피커 \$79.00	superlux hd661 / 헤드셋 헤드폰 \$49.00	ebtech HE-2-XLR (HUM ELIMINATOR) (2 ch box w/ XLR) 릴/도이지 제거기 \$84.99	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erminator: 피드백 제거기 \$329.99	hosa cable MMK-025AU / 25ft 마이크 케이블 \$29.99
Sanyo PLC-XL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	Beng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	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동용 100인치 스크린 \$199.00	25ft VGA Cable / 프로젝터& 컴퓨터 케이블 \$15.00	MHP-20 / 프로젝터 마운트 \$47.00	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통화기 세트(4인 기증) Call for Price	beringer f1220A Power Monitor / 파워 모니터 스피커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
Music Stand / 보편대 \$34.99	whirwind Director / DI-BOX \$61.02	American DJ PAR CAN 56 Combo / 조명 파린 풀보 키트 \$59.95	Numark MP-102 CD player \$199.00	Elati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	Elation DLED 36 TriBrick / LED 조명 \$499.00	Ushio 조명 램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757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575WBM \$25.00
Yamaha DXPV V-Drum \$899.00	Yamaha S90XS Keyboard \$2,299.00	Yamaha MotifXF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	Behringer XENYX X1 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	Behringer XENYX 1204 \$98.99	Edrol V-4 Video Mixer \$1174.95	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제2차 가격파괴

최상급 산삼만
타운최저가격으로

山 参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80-120뿌리	\$6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종전무게
\$600	25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20-30년근	70그램

한국에는 매회 300그램까지 합법적인 면세품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산삼이 이곳보다 약50배 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주 전 지역 무료 배송
LA, 오렌지카운티 무료 배달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소매업소보다 5~10배 싼 가격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최상급 효능 산삼이 매주 두 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 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한인수

안전한 인터넷쇼핑몰: www.KBSmall.com



(올림픽과 크렌셔 북동쪽 코너 1층 상가건물)



\$200 / 소매가 ~~\$1,000~~

70그램 90그램 / 20~35년근 15 ~ 20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40~50년근 15~20뿌리

단골 구매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

1. 고객님의 맥으로 보내드린 구pon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모든 제품의 산삼 구매시 구매 상품의 산삼을 해당되는 퍼센트로 덤으로 더 드립니다.
2.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작용 없는 최고급 염색약 명호치 마님 (박스당 22봉)을 산삼 구매가의 10%에 해당되는 만큼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3. 700볼 시판기의 정수 능력 순도 100%인 최고급 역삼투 정수기(자사개발-최초 6개 필터 장착)를 대당 원가인 \$249에 공급해 드립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365-2100
O.C.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산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찬양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집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버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재지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담임: 윤선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2부예배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교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월-목)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서파크초등학교교당)
 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등,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철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월-토): 오후 8:00
 중교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S 저녁 7:30
 중교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환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 4기 Crocker St.)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너지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목/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도 12:30(만남)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
 '말씀건너세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삼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누가 내 체질을 아시는가

우리 모두는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이동전화와 화상전화같이 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통신수단과 교통수단 덕으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화와 정보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나누며 교류합니다. 전통적으로 살았던 민족 고유의 삶의 스타일과 함께 자신의 음식과 의상, 음악, 문화를 모두 함께 나눕니다. 특히 LA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기에 다른 민족들과 피부부 맞다고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종종 들곤 하였습니다.

최근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국 국적 비행기, 일본 국적 비행기, 미국 국적 비행기를 다양하게 타게 되었습니다. 관찰을 해 보니 한국 비행기 승무원이나 일본 비행기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음료수를 줄 때 승객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얼음없이 물과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일하는 승무원은 "얼음 없이(with no ice)"란 말을 하지 않으면 얼음을 가득 담아서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또한 미국 비행기 안의 온도는 한 여름에도 거의 대부분은 긴 옷을 꼭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춥습니다. 최근 저는 미국 목회자 여섯 분과 같이 미국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또 호스트 하시는 목사님 댁에 식사 초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 거실 모두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 추워서 반팔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반팔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저는 추워서 자켓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온도에 관한 한 미국 사람들과 동양인인 우리가 다르

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개인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체질에 맞추어 문화와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부 지간에도 온도가 달라 서로 각각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인지 전기요나 전기 이불도 각각 온도 조절기가 따로 부착되어 있고 자동차에도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각 개인별로도 나이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체감온도가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온도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저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입증별로 나이별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든 차이를 아시는 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기쁘고 힘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체질이 진도임을 기억하고 계시다'(시편 103:14)고 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함께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지구촌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대방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여 비록 작은 목소리로나마 그 하나님을 모두에게 알리고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신앙논단 |

목회자의 말씀과 삶의 일치



조주호 목사
리포드대학교 대학원 총장

목회자는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여 잘 가르치는 일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직분이라는 명분이 치중하다 보면 형상이 물들어 목회주의로 향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역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독점하는 목회자는 성경 말씀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읽고 말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기도 생활도 성도와와의 일체감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다 더 가깝게 의식하면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본을 보이는 목회로 배우고 삶의 일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게 됩니다.

설교자가 감동도, 은혜도 없이 무관심 속에 말씀을 전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바로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잃어 버리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 버리는, 스스로에게 비참한 삶의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는 영적 성장과 심령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설교는 잘하지만 생활은 전혀 다르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목회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경계하고 목회자의 인격적 삶에 대한 요구를 얻습니다. 설교자들이 사는 생활방식이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다르게 보여지는 이중적인 생활을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몸소 실천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통감하게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위치를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목회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파 족장들에게 베풀어 주고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물에 들어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법계를 댈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서자 요단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가는 길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백성들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신앙적인 결단이고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드리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삶의 일관성없는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일이 됩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엄마의 품과 같은 단어입니다. 푸근합니다. 안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 말할 때 당신의 표정을 거울에서 보십시오. 짜증스러운 얼굴이나 화난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의 얼굴은 가장 행복한 얼굴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얼굴은, 미소짓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겸손한 모습, 감동의 얼굴입니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등에서 감사의 물결이 흐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반드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 글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온 마음과 영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글로 적어 보세요.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적은 감사를 하나님께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감사가 넘치면 나도 누리고 상대방도 누리지요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감동을 먹습니다.

감사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 보면 어떤 까요. 마켓이나 과수원에 가서, 한 해동안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집에서 정성껏 키운 과일 나무의 열매들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만끽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사 물건(예를 들면 쌀이나 과일)들을 교회로 가져 오시면 강단 앞에 기쁨으로 장식할 것입니다. 감사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불경기 때 감사하라, 경기가 풀리리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리라", "많을 때에 감사하라 쌓아져 가리리라."

저의 감사를 몇 가지 적어봅니다. 많은 감사 중에 첫 번째는 ①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②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아내가 기도의 일꾼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③행복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④좋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⑤한국인으로 태어나 부모님께 신앙을 전수받고 한국 민족의 장점을 살려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니 감사드립니다. ⑥세계선교를 꿈꾸며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니 감사드립니다. ⑦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장로님과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지면상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밤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5:20의 '밤새에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은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세상은 온통 그 사람의 것입니다.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감사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돌기둥

켄터키 주에 가면 맘모스 케이브(Mammoth Cave)라는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고드름처럼 생긴 거대한 돌기둥들이 수천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돌기둥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이 지표에서 동굴 천장으로 흘러 내려와 함유하고 있는 침전물을 동굴 바닥에 침전시킵니다. 또 한 방울이 그 뒤를 잇고, 또 다른 한 방울이 그 뒤를 이어 이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돌기둥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마음 속에 고드름같이 단단한 돌기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든 작은 생각의 조각들이 한 방울, 한 방울, 쌓여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큰 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우리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성품이 되기도 하여, 우리 자신을 이루게 됩니다. 애써 감추려 하고 위장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드러나고 마는 우리 인격의 정체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 소홀히 한 마음의 기둥이 표출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스며들도록 마음의 창문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야만적인 성품을 버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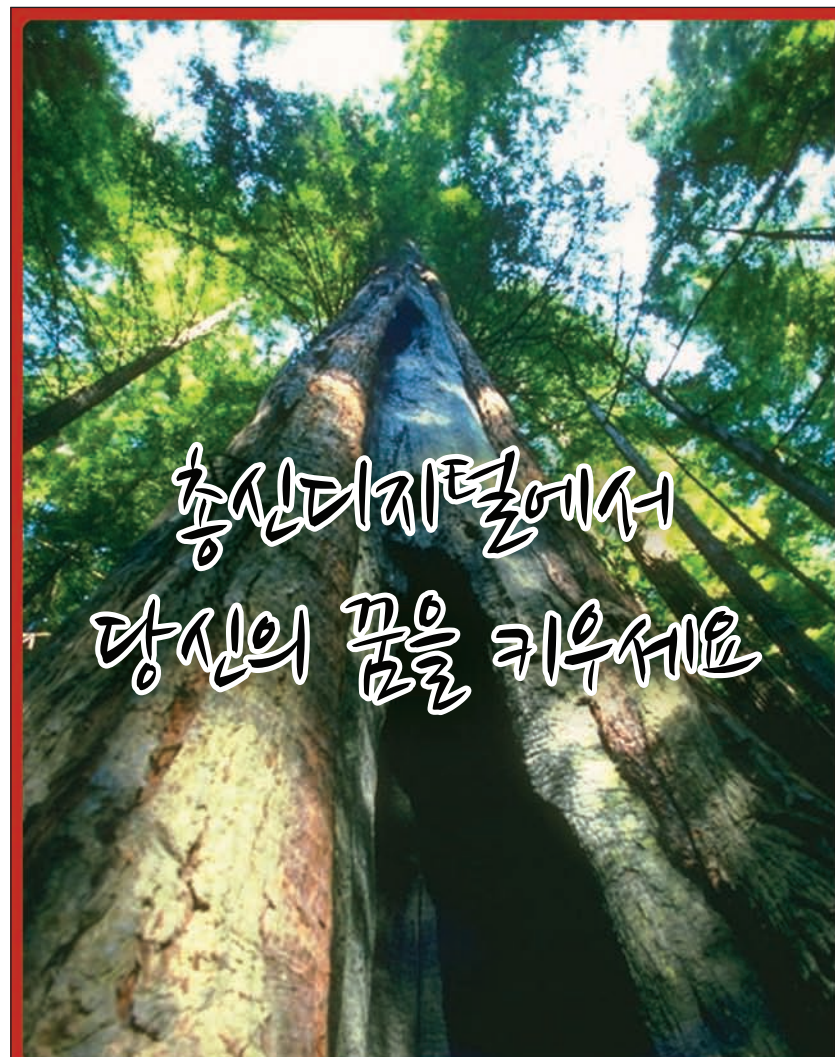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이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성격은 없애지지 않더라구!"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돌기둥을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는 날마다 어떤 생각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오염으로 가득찬 교만한 마음입니까? 목에 힘주고 걸만 그럴 듯하게 꾸민다고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마음의 혁명을 추구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쌓여진 돌덩어리가 없지 잘 점검해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총신디지털에서
당신의 꿈을 키우세요

본 교육원은 학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각가의 수업을 강의실에서 직접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받는 것 못지 않은 최고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육원에서 신학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대한예수장로회총회 그리고 총회신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목사, 강도사, 전도사 고시까지 안내 및 응시가 가능합니다.

총신디지털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과 자성이 한걸음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개회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목회자들의 잇따른 자살 이제 침묵을 깨야 할 때

목회자들 개인 문제 털어놓는 소통 분위기 필요

최근 텍사스 주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 목회자의 자살이 미 교계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텍사스 주 플라노시 헌터글렌침례교회에서 20년 간 사역했던 김 홀 목사(Kim Hall)는 지난달인 10월 22일 새벽 플라노시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조사 결과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목회자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8월 플로리다 대형교회(교인 약 8000명) 목회자인 재커리 팀스 목사(Zachery Tims, 42세) 역시 뉴욕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팀스牧사는 1996년 플로리다 주 아홉카 시의 데스티니크리스천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를 개척하고, 당시 담임 목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4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어린 시절 약물 중독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회자의 자살은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다.

오클라호마주 팀사 사우던힐스침례교회 담임 헤스 헤스터 목사는 최근 일어난 자살 사건과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솔직히 사회의 무관심에 놀랐다. 죽음으로 몰고 간 상

황이 어떠한 건에 우리는 한 동료기를 잃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조사하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며 살아갈 욕심보다 고통스런 자리를 선택하면서까지 개인적인 고통을 끊을 욕심이 승리했던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스터 목사는 새들백교회에 기반한 목회자 돌봄 사역인 셀러브레이티 리커버리 사역(Celebrate Recovery, 이하 CR)을 6년 전 시작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교회 내 사역자들(목회자들)이 개인적 고민과 걱정거리를 자유롭게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교회 분위

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R 사역은 성경적 원리와 알콜중독회복 12단계 원리를 복합해 개발했다.

헤스터 목사는 "수년 간 우리는 침묵 속에 많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간파해 왔다(때로 그것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침묵이었을 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소통하고 털어놓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역을 통해 4년 간 나 자신을 치유했다. 나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더 많은 교회, 단체들이 목회자 돌봄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CR 사역은 1991년 새들백교회에서 시작된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하나다.

권나라 기자

기독교인은 기독 정치인만 지지해야 하는가

정치적 입장은 종교와 직결 vs 능력으로만 평가해야

기독교인은 정치 선거에서 반드시 기독교인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할까?

늘상 토론되는 이 주제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교계에서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몰몬교인인 미트 롬니 후보가 기독교인인 다른 후보들과 함께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주제는 더욱 열띤 토론을 낳고 있다.

최근 열린 보수 기독교 유권자 모임인 밸류즈 보터스 서밋(Values Voters Summit)에서는 어떤 공화당 경선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제프리스 제일침례교회 담임인 로버트 제프리스(Jeffress) 목사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기독교인인 릭 페리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그 이유로 페리 후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 목사는 미트 롬니 후보에 대해서는 "그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하지만 거듭난 기독교인이려면 항상 기독교인 후보를 비기독교인 후보보다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목사의 주장은 그에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레이크우드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자신은 몰몬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후보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꼭 기독교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미 기독교 지도자들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보수 기독교계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패밀리리서치카운슬(FRC)의 토니 퍼킨스 목사는 "한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할 때 그 기반은 종교적 신념과 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는 성숙하고 자질있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공적인 임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퍼킨스 목사는 롬니 후보가 기독교인이 아니며 따라서 기독교계가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어 제프리스 목사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롬니 후보에 대한 종교적 공격을 비판하고 나선 프리즌펠로우십의 척 폴슨 목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어떤 특정 후보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정치 후보자는 그가 수행할 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지 종교가 그를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나 퍼킨스 목사는 헌법상 종교에 의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할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지, 유권자들의 선택과는 무관하다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 주제에 관한 뜨거운 토론은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순헌정 기자

교회 세습, 비판의 대상인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인가

"준비됐다면 누구든 세워야" vs "공교회 거룩성이 기준"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환 박사)이 2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 영성과 교회 갱신'을 주제로 제16회 영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교회의 후임자 선정'을 주제로 한 총신대학교 정일용 총장의 발표였다. 그는 대형교회의 '세습'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단순히 아들이 후임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총장의 발표를 논평한 기독교학술원 정성진 목사는 '세습'이 바로 한국교회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습이란 말로 교회 매도한 건 아니었다"

먼저 정 총장은 "한국교회에서 담임목사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그간 교회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일을 전혀 낯선 사람 보다는 전임자와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의 세습이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대물림 현상은 한국사회가 독재주의 정치가 지배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의 시대로 전환하던 바로 그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 (세습에 대한) 비판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세습을 비판하는 대표적 두 인물인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와 김동호 목사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를 예로 들었는데, 그들의 비판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총장은 이에 대해 "아직도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목회현실의 실제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신학적인 관점의 성찰은 간과한 채, 다만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만 비판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특히 정 총장에 따르면 김동호 목사는 세습을 막기 위해 교회 정치 구조의 분권화와 매개 권력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정 총장은 "교회 밖의 비판세력의 교회문제 개입을 옹호하는 주장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호 목사가 말하는 NGO와 같은 교회 밖의 세력이 교회 일에 개입해 비판할 때, 그 자체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일 외에 별다른 기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목사의 의견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 총장은 ▲세습은 사도신조의 공교회 정신에 위배되고 ▲목사직은 세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세습은 교회 안에 예수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로 세습을 반대한 김명용 교수(장신대)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형교회 리더십의 대물림이 약 15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점이 교회 공동체가 평가가



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하는 제16회 영성포럼이 기독교 영성과 교회갱신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개최예에서 이장식 박사(한신대 명예교수)가 설교하고 있다.

운데 잘 이끌어진다면, 세습도 후임 목사 선정방법 중 하나였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습이라는 언어로 지나치게 (교회) 매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세습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서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일이) 가능하다 것을 인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들이건, 대형교회의 부목사 가운데서건 주님의 교회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를 후임자로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 후 세습 통용되는 현상 이해 못한 듯"

그러나 정 총장의 발표를 논평한 정성진 목사는 "교회 위기는 사실 그 출발점이 교회 사유화에 있다"며 "교회를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이만큼 키웠고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사유화된다. 그러다보니 교회를 더 키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세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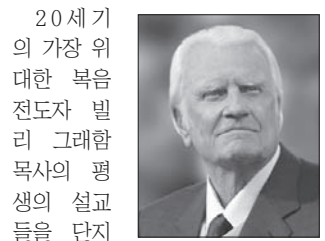
하고 싶고 교회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후임자 선정은 공교회성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세습에 반대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직 대물림 현상을, 즉 세습을 '한국사회가 독재주의 정치가 지배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의 시대로 전환하던 바로 그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정 총장님이) 이해하셨는데, 실제적인 세습은 9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더 심화되고, 특정 교단에서는 그것이 버젓이 관습처럼 통용되고 있는 오늘을, 즉 세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정 목사는 "(정 총장님이 주장한) '세습하는 방법도 후임목사 선정방법 중 하나'라는 부분은 공교회성의 거룩성이란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세습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빌리 그레함 평생의 설교들 온라인에서 다시 듣는다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평생의 설교들을 단지 클릭 몇 번만으로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빌리그레함복음전도협회(BGEA)는 빌리 그레함 오디오 아카이브를 온라인상에 개소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BGEA 홈페이지(www.billygraham.org)를 통해 지난 60여년간 그레함 목사가 전한 설교들 가운데 약 1,600여 설교들을 주제별, 장소별, 연도별로 찾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레함 목사는 최초의 세계 복음 전도자였다. 그는 전 세계 구석구석

을 여행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됐고 복음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켄 베이런 BGEA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말했다.

아카이브는 그레함 목사의 93번째 생일인 오는 11월 7일을 며칠 앞두고 문을 열었다.

베이런은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의 메시지들은 오늘날 사회문화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레함 목사의 설교가 변화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늘 적절히 다루면서도 그 기반에 있는 복음의 정신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순헌정 기자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 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원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카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들이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들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웍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만나... 이젠 열방 향해 가고파

Crover 대표 신동철 집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다시 일어나

“교회에서는 일도 많이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비즈니스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하고 돌아봤을 때 제가 회계를 많이 했어요. 작년 연말에 이런 감동이 왔는데, ‘내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교회에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일터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회계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잘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 야지 열방에 가서도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봐요.”

나눔과 관계가 없었어요. T.J Max와 Ross 등에 납품을 하는 등 돈을 많이 벌었죠. 회사를 더 크게 키워 보려고 중국계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 함께 일했던 파트너의 배신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말았어요. 매우 힘든 때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그는 다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동생의 오피스를 3년동안 빌려 쓰면서 출품 전시회도 나가지 않았고,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비즈니스

일터에서 예수님 사랑 실천해야 열방에 그리스도 향기 드러낼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신 집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선데이 크리스천 수준이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3년 동안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어려운 과정이 축복이었구나. 그 당시는 너무 힘들

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됐다. 그야말로 은혜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죠. 그때는 일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비즈니스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재작년에 커넥티켓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와 주러 갔었던거요. 그 교회에서 훈련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탄소

매트’라는 신개념 온열매트를 소개시켜 주셨죠.”

숯이 주원료인 탄소섬유로 만든 탄소매트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성질이 있어 매트 안에 전기선이 필요없다. 이 탄소섬유는 원적외선 복사열을 발산하므로 훈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며, 더불어 솜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은 인체에 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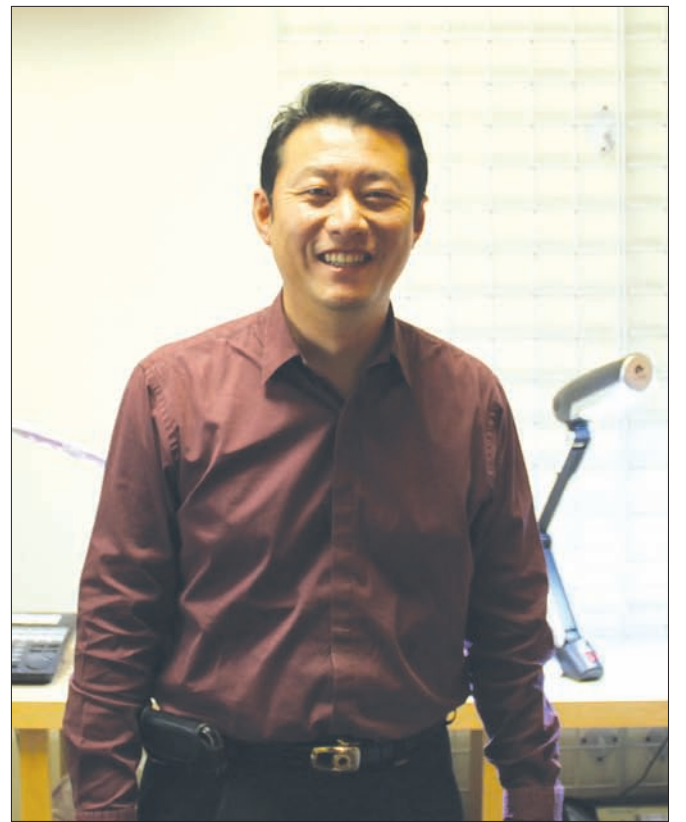
더욱이 전기제품 중 유일하게 물세탁이 가능한 신제품으로 관련 특허만 4개다.

“그 분의 소개로 샘플을 받아 직접 써 보게 됐고, 정말 좋더라고요. 지난해 초 특허를 받은 업체(한국)와 계약을 맺고 미주 캐나다 지역 독점판매권을 얻게 됐습니다.”

신 집사는 사업이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무엇보다 크리스천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는 그는 이 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동시에 자신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를 나갔으면 한다고 한다.

“현재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일어나야 해요. 예를 들어 ‘인도나 파키스탄 등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는 지역에 공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섬기고 훈련시켜서 다른 곳에 내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신동철 집사는 일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런 감동을 주셨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교가 자기 만족이 되면 안되니까요. 청소를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굿뉴스잖아요”라고 말하는 그가 앞으로 열방을 향해 어떻게 다가갈지 기대된다.

토마스 멩 기자

아이토크비비 “통큰 할인” 프로모션

다양한 할인 행사로 한인들에 편의제공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iTalkBB)가 1일부터 한국전화와 국제전화 무료 플랜이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통큰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아이토크비비 측은 “올해 들어 \$24.99와 \$34.99 등 무제한 한국전화와 27개국 국제전화 가능한 플랜의 가격 할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한인들의 한국 및 국제전화 이용 증가가 예상되어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대폭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통큰 할인 프로모션은 \$24.99 플랜의 경우 \$14.99로 \$10이 할인되며, \$34.99 플랜은 \$19.99로 \$15이 할인되어 이들 플랜의 가입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 호소적이다.

또 연말 한국으로의 전화통화량이 많아져 통신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예비 한인 가입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토크비비가 제공하고 있는 집전화 무료 플랜 중, 한인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글로벌 플러스”인데, 이 플랜은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는 물론, 한국 포함 27개국까지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폰까지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전천후 플랜이다.

이 플랜 가입자는 외출 중에도 휴대폰으로 월 최대 500분까지 27개 대상국에 무료통화를 할 수 있으며, 무료 070 번호가 제공되어 한국의 가족 친지들이 한국시내 전화요금만으로 미국에 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월 사용료 \$24.99에서 \$14.99로 할인되는 “글로벌” 플랜 역시, 위와 같은 2개의 인기 높은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한국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분당 요금(1분당 5센트)이 부과된다는 점만 다르다.

아이토크비비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각종 무료 서비스에 덧붙여,

저렴한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품질과, 365일 한국어 고객센터 등 각종 장점이 많다는 사실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주 한인들이 미국 현지 업체를 이용하면서 언어불편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365일 한국어 서비스는 한인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며, 30일 환불 보장 제도 역시, 고객만족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로 보인다.

아이토크비비 관계자는 “평소 한국 또는 외국으로의 통화량이 많았거나, 또는 비싼 집(유선)전화로 월 사용료에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품질 좋고 저렴한 아이토크비비로 교체할 것을 권하며, 특히 연말 연시 한국으로의 많은 통화로 높은 전화요금에 염려된다면, 이번 11월에 진행되는 통큰 할인 프로모션으로 연말연시 통신비 부담감에서 해방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번 프로모션은 할인 적용 후, 18개월의 약정기간이 있다. 가입문의: 1-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박기성 기자

고베펠 진주보석쇼 열린다

LA한인타운, 부에나파크에서 15-20일까지

진주 전문업체 고베펠 사의 불꽃 타게 긴급제안 진주보석쇼가 오는 11월 15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일요일까지 6일간 LA 한인타운 로텍스호텔과 부에나파크 홀리데이인에서 연이어 열린다.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베펠 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세공 기술과 진주 메카인 일본의 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4천여점을 최고 80%까지 특별 세일한다.

특히 고베펠 사가 직접 제작, 세공한 진주 목걸이 등 비드류는 무조건 80% 특가 세일을 하게 되며 한국에서 세공된 5백여 점에 이르는 실버류의 반지 귀걸이, 펜던트 등 클러하면서도 우아한 신제품도 대거 출시된다.

고베펠 사가 이번에 제안하는 80% 특가 비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전 499불에 파는 진주 비드 목걸이 7밀리에서 7.5밀리의 경우 80% 할인해 단돈 99불, 즉 공장도가로 세일하기로 했다.

둘째는 정가 1,499불하던 7밀리-7.5밀리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를 하게 된다.

고베펠 사는 바다의 보석 산호, 거의 남양진주 톤이면서도 값은 아주 싸고 뉴욕 등지에서 인기가 폭발적인 프리미엄 인공 핵진주도 대거 선보이게 되면서 올 가을 진주 패션에 큰 관심을 끌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베펠 사의 진주보석 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안내]
행사 일시: 2011년 11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행사 장소: 로텍스호텔
Rotex Hotel 2층 뱅킷룸
3411 W. Olympic Blvd., LA CA 90019 (올림픽과 그레머시)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행사 일시: 2011년 11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2일간
행사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Buena Park
1층 가든1룸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비치와 아티시아)
박기성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종일무료/24시간 행사안내 www.koreaitalkbb.com [존스오래가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집전화의 표준! 아이토크비비

~~\$24.99~~

통큰 할인*

행사기간 2011년 11월 15일 까지

\$14.99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무제한 하나로!

Global Unlimited Plan

~~\$24.99~~ **\$14.99** /월

첫 6개월간, 이후 \$24.99/월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30일 환불 보장!

부가서비스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 넘버**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무료 매월 500분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휴대 전화로 국제전화를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 **\$19.99** /월

첫 6개월간, 이후 \$34.99/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 통큰 할인 프로모션 - 프로모션 기간 첫 6개월을 포함해 총 24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월별 (\$25.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로 국제 전화와 국제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엠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 Equus
\$739 + tax
T.D.O \$2,999
O.A.C 3YR/36K (STK#041922)



2012 Genesis
\$399 + tax
T.D.O \$3,499
O.A.C 3YR/36K (STK#167271)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달려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012 Accent
\$16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116397)



2012 Veloster M/T
\$17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022103)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용자 거절 되신 분 일정한 비용만 내시면 100% 용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10 DODGE AVENGER SXT	(P108045/108045)	\$16,888
'10 VOLKSWAGEN NEW BEETLE	(P008693/008693)	\$16,908
'08 TOYOTA CAMRY LE	(142262A/045338)	\$17,888
'08 HONDA ACCORD	(033780A/098353)	\$17,936
'10 VOLKSWAGEN JETTA S	(P082563/082563)	\$18,888
'11 HYUNDAI SONATA GLS	(P049785/049785)	\$18,888
'11 CHEVROLET MALIBU	(P100296/100296)	\$18,964
'10 CHRYSLER SEBRING TOUR	(P123861/123861)	\$18,998
'08 CHEVROLET SILVERADO LT	(259499A/140734)	\$19,963
'11 KIA SORENTO LX	(P001565/001565)	\$19,987
'10 HYUNDAI SANTA FE GLS	(P336562/336562)	\$20,888
'09 HYUNDAI GENESIS 3.8L	(P021782/021782)	\$24,941

'09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U373093)	\$11,299
'10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SILVER, 4DR (U419990)	\$11,399
'03 TOYOTA AVALON SDN XL	4DR, BUCKET SEATS (U281813)	\$11,549
'09 KIA SPECTRA	(5658962)	\$11,899
'10 HYUNDAI ACCENT 2 DCP	CERTIFIED, SILVER (U169045)	\$12,999
'10 KIA RIO	(6687779)	\$13,302
'08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UNROOF (80370153)	\$13,499
'09 HYUNDAI ELANTRA SDN	CERTIFIED, 4 DR, AUTO GLS S (U720008)	\$14,789
'08 SCION tC	(80262589)	\$14,899
'10 KIA FORTE	LOW MILES (5129865)	\$15,789
'08 HONDA FIT 5 DR. NB	AUTO SPORT PURP (S014919)	\$15,899
'10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ILVER (U835331)	\$15,995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한국인 상담 제니 김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한국인 상담 제니 김
(310)749-7599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 MAZDA 5
편리한 미니밴

2011 CX-7
실용적인 SUV

스페셜 **0%**

2011 CX-9
3석자리 SUV

스페셜 **0%**

2011 MIATA
여름 정취를 스포츠카